새정치 전대, 대표·최고 분리 선출 가닥

출마 유력 박지원·문재인·정세균 현행 룰 지지 입장

대표에 최종 의사결정 권한 부여 단일지도체제 유지

새정치민주연합 임시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잠재적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한 계파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2015 전당대회의 목표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전대준비위는 당헌·당규를 손대지 말고 안정감 있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 경선으로 뽑는 현행 '투 트랙' 분리 선거를 유지하자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도 "당헌은 수시로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동의했다.

전대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비대위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당의 안정성과 정당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당의 혁신과제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며 현행 지도부 경선 방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정세균 비대위원도 그동안 현재의 지도부 경선 룰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권·대권 분리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는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유력 당권 후보인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을 봉쇄하는 조치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대권과 당권 분리 문제는 당헌 개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결단 문제"라면서 "대선이 3년 정도 남았는데 미리 대선 후보는 나오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평련 계열인 이목희 의원도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만들 문제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486그룹' 우상호 의원은 "당권을 쥔 계파에 대해 타 계파들이 견제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많았다"며 "분리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서 "친노·반노의 문제도, 문재인·박지원의 대결도 아니다. 집권을 위해서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각 계파 별로 전대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비노(비 노무현) 그룹 문병호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 캠프에 의원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상향식 선출제 명시 등을 제안하면서 계파주의 해소를 촉구했다.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윤호중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하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입당 절차를 온라인으로 열어놓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에 출마할 인사들은 비대위원회에서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 전대준비위에서 사퇴 시점을 적절히 못 박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정례 세미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신불립' 정례 세미나 '2015 전당대회의 목표와 과제'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법인세 정상화땐 복지예산 충분"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이명박정부 시절 인하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해 복지 예산 등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용어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이들 밥 한 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 대통령의 공약마저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내년 4대강 비리 사업에 무려 2조원 가량이 편성됐고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창조경제단지 조성에 55억원이 편성됐다"면서 "이런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지방정부를 살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상임위별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예결위에서의 심사전략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으로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극심해 상황이 녹록진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146명, 대법관 절반 非판사 출신 임용법 발의

국회에서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원 인사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비(非)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하면서 그 범위를 '2분의 1'로 적시했다. 현행법에도 대법관 임용자격과 관련, 검사와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판사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68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 경선 '시끌'

경선 룰 신경전…정상용·김하중 경선 보이콧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일부 경선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룰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경선룰이 정해지기도 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서는 김하중·정상용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격을 10월말까지 단 한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는 안을 비대위에 올렸다"면서 "관례가 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선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 3~4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인단 참여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후후무하게 단돈 1000원 내면 투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룰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리적인고 상식적인 경선룰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만일 합리적인 경선룰이 아니다고 판단되면 두 사람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선 보이콧 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조영택 후보도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 "중앙당의 공식 방침으로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 당력을 훼손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조강특위는 최근 6명의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마친 뒤 경선후보로 조영택·정상용 전 의원과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등 3명을 경선후보로 압축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동철 "광산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공군측 고도제한 완화 밝혀

고도제한 때문에 7년 동안 표류해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13일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공군 측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설득한 끝에 최근 공군본부가 광주 송정지구 비행안전영향을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기 표류해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다"며 "특히 노후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 안전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1840세대에 달하는 최고의 주거타운이 형성돼 구도시 슬럼화 방지 및 주거난 해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준공돼 952세대가 거주하는 송정주공아파트는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을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대상으로 결정된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 법 백 헌 학개론 임진택 공 법 이강열
중개법 홍덕기 공시법 안규채 세 법 임기원
개강 11月10日 주 부 반 11月~12月 기초과정 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 인 반 직장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신예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책임강의, 모르면 알때까지
· 기초과정 ~ 11月 ~12月 · 기본서 ii ~ 5月 ~ 6月
· 기본서 i ~ 1月 ~ 2月 · 문제풀이 ~ 7月 ~ 8月
· 기본서 ii ~ 3月 ~ 4月 · 총 정 리 ~ 9月 ~ 10月
매월 1일은 정규 개강일 입니다.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 · 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본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 • 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창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